

#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 '풍성'

전주 11개 시립도서관, 내달 4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청소년 대상 31개 공연·체험 등 마련

책 읽기 좋은 도서관도시 전주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8월 4일부터 29일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삼천도서관을 제외한 11개 시립도서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4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강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강에는 도서관별로 총 31개의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전주시립도서관 '꽃실'에서는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가족을 위한 그림자극인 '여름밤, 달빛극장: 종이붕지공주' 공연이 펼쳐지며 키팅과 클라주 액자 만들기도 진행된다. 특히 트윈세대를 위한 전용공간에서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철학교실과 마음치유 교실도 운영된다.

완산구 권역의 경우 △완산도서관-격정은 내게 맡겨, 격정인형 만들기, 3D펜으로 만드는 내 친구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꽃보다 예쁜 다육이 정원 만들기 △서신도서관-클레이로 액자·원두막 만들기, 신기한 손세정제 만들기, 신기한 자기부상 경주하기 등이 준비됐다. 여기에 △평화도서관-창의GO 보드GO: 추상 전략 보드게임, 내 손으로 만드는 천연 보습 손소독제 △효자도서관-책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여름휴가, 다육이 가든 꾸미기, 세계기록유산 속 우리역사 '역사 북아트' 등도 실시된다.  
또한 덕진구 권역에서는 △송천도서관-어린이 아뜰리에(터널 스토리, 다육이 가든 만들기) △금암도서관-여름을 담은 석고방향제, 이야기 꽃을 피우다(플라워 케이크, 드라이플라워 액자) △인후도서관-희망을 담은 만두 꽃피자 피우기, 동화 속 꿈나라로 떠나는 무드등 만들기 등이 펼쳐진다.  
더불어 △아중도서관-천연 무알콜 손세정제·피부진정제 만들기, 나만의 반려식물 키우기 △쪽구름도서관-한여름 도서관 꽃꽂이 수업, 4차 산업시대 우리가 주인공! 코딩체험 △건지도서관-이야기 꽃을 피우다(리스 만들기, 테라리움) 등이 열리게 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운영할 방침이다.  
자세한 프로그램별 일정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확인, 접수하면 되며 해당 도서관에서도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할 수 있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의 소통의 시간이 부족해진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 행사에 참여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즐거운 방학생활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

### JS 아트페스티벌 협동조합 창립 음악회

JS 아트(제이에스 아트페스티벌) 협동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6시 한국농업연구소(장수읍 발방골길 72)에서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협동조합의 창립을 알리고 코로나19로 문화 예술 공연이 뜸했던 장수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의 관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악회는 문장택 연주자의 백파이프연주를 시작으로 비올라, 트럼펫,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 연주와 성악 등 풍성하고 다양한 곡들이 선보였다.  
음악회와 함께 협동조합과 한국농업연구소는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위해 MOU를 체결하고 공연과 예술, 음악 캠프 등 문화 공연 장소 제공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군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길 바란다"며 "음악회를 시작으로 장수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 아트에 김두환 대표이사 외 4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지난 3월 4일 설립됐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진흥과 도시지역 오케스트라와 연계한 공연 및 캠프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고창 선운산 전경.

## '고창에서 한 달 여행 어때?'

### 도-고창군, 참가자 모집

고창군이 곳곳의 숨은 명소를 찾아 맛·멋과 함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전라북도 고창에서 한 달 여행하기'를 선보여 관심이 높고 있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코로나19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며 지역 여행을 할 수 있는 장기 체류형 상품인 '한 달 여행하기'의 참가자를 접수 받고 있다.  
'한 달 여행하기'는 말 그대로 고창에서 한 달을 머물면서, 고창의 사람과 문화와 여유롭게 소통하고, 그 속에서 힐링하며, 충전과 성장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행이다.  
전북도와 고창군은 지역에 숨어있는 다양한

관광자원 홍보와 재방문을 유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대상은 전북지역 거주경험이 없는 여행작가, 여행기자, 여행유튜버, 여행블로거, 코로나19 현장 근무자 등 고창여행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팀이다. 여행과 홍보계획서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에겐 7일 이상 30일 이내의 여행기간 동안 숙박비와 체류비 일부를 지원한다.  
고창군은 고창문화관광재단과 함께 관내 숙박시설과 음식점의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위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품질관리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양성, 종사자 교육 등 언택트 시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여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창=김영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전시, 온라인으로 즐기자'

### 정읍시립미술관 '소박한 선-물' 온라인 미술관으로 선포

정읍시는 코로나 19를 이겨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소박한 선-물' 기획전시를 집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온라인 미술관'을 선보인다.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또, 전시실에서는 음성 아이콘이 표시된 작품들의 설명을 순서별 또는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이번 '소박한 선-물'전은 많은 관람객과 시민들이 코로나 19로 침체되었을 감정들을 작품을 통해 직접 감상하고 체험해 보며 해소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 19 환자의 치료와 지원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미술관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현장 관람을 꺼리는 관람객들을 위해 오프라인 전시를 온라인 공간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시 홈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와 전용 QR코드를 통해 작품을 관람하며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해설 서비스도 도입해 온라인 관람객과 오프라인 관람객을 동시에 맞이할 예정이다.

온라인 미술관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45점 중 20점의 작품설명을

인 교육도 준비 중이다.  
코로나 19로 잠정 중단되었던 '미술관 특약 아트' 체험을 8월부터 온라인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 10시부터 신청 후 체험 날인 8월 26일 영상이 업로드되면 미술관에서 보내주는 재료를 이용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체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과 체험 등의 다양한 미술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며 "코로나 19로 집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이 작품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립미술관 홈페이지(www.jongseup.go.kr/cultur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평범한 일상의 재탄생... '물처럼 같이 흐르며'

### 이상권 개인전,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도립미술관 서울관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 서울관에서 오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상권 작가의 15번째 개인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물처럼 같이 흐르며'라는 주제로 평범한 우리의 일상과 풍경들을 작가만의 감성으로 재표현한 수채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는 작가의 주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나 보통의 풍경들로 이루어진다.

학교에서 재직 중인 작가는 학교에서 관찰되는 학생들의 모습과 작가의 어린 시절이 오버랩(Overlap)되면서 이야기가 합쳐져 작품 속에 펼쳐진다.

일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나 행해지는 상황의 감성에 작가만의 이야기가 더해져 표현되는 것이다.

작품은 사실적이면서도 디테일(Detail)을 추구하지 않는다.

소재는 일부 형태를 가져와 이야기를 표현하고 이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 배경의 형태를 생략하거나 변형하여 주제에 집중되도록 의도하였다.

특히 비워진 여백의 화면은 회화의 맛을 한층 살리고 숙련된 에너지의 응집을 보여준다.

이렇듯 작품은 한편의 즉흥적인 수필이 되어 순간의 감정을 존중하고 대상에서 느껴지는



이상권작 '겨울이야기4'

감성과 교감하며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흘러가게 된다.

이렇듯 평소에 지나칠 수 있는 순간의 조각들, 평범했던 사람과 사람 그리고 일상의 순간은 작가만의 표현을 통해 새롭게 재탄생한다.

이를 통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각자의 잃어버렸던 천진한 과거를 회상하고 잠시나마 평화로운 위로의 시간을 갖게 한다.

한편 이상권 작가는 원광대학교 미술학과(서양화 전공)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15번째 개인전이며 다수의 기획 초대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